

순천시, 황금연휴 36만명 방문… 245억 경제효과

대표 생태·가족 여행지 입지
순천만국가정원 4일 13만명
‘하루 최다 방문 기록’ 경신해
민·관 협력 관광객 수용 효과

전라남도 순천시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전국 각지에서 36만명이 방문하며 245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기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는 36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가족 여행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나흘간 약 245억원 규모의 직접 및 간접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순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4일에는 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순천시에 36만명이 방문하며 245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황금연휴 기간 관람객으로 북적이는 순천만국가정원 낙우송길.

순천시 제공

천만국가정원에 하루 12만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난 2024년 개장 이후 ‘하루 최다 방문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국가정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관광객과 단체 여행객들

로 붐비며 대기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연휴 기간 정원 곳곳에서는 시크릿 어드벤처, 테라피가든, 어린이동물원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돼 국가정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봄꽃이 만개한 풍경과 감성적인 정원 콘텐츠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MZ세대까지 아우르는 흥행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연휴 기간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전 부서 협업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고, 민원 대응부터 교통·위생·안전 관리까지 종합적인 관광 수용태세를 구축한 바 있다.

주요 관광지에는 안내 인력과 해설사를 배치하고, 관람 동선·주차장·화장실 등 시설 이용 여건을 수시로 점검해 혼잡을 최소화했으며, SNS 여론과 민원 사항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관내 숙박업소와 외식업소 밀집 지역 4개 권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외식업소는 평시 대비 2~2.5배 이상의 매출 증가 속에서도 전반적인 서비스와 위생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숙박협회와 외식업지부를 통한 사전 문자 안내와 친절·위생 강조 공지, 바가지요금 자정 노력 등 선제적 조치가 민원 예방에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시는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현장 계도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 상인,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았기에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며 “이번 연휴에 순천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쉼과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치유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외식·숙박업소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인프라 개선 등, 관광객 수용 역량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체험, 휴식, 자연이 어우러지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교통·숙박·편의시설 등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치유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송광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송광면 덕동마을에서 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 주축으로 마중물보장협의체, 119생활안전순찰대, 더클린협동조합, 이장단 등 여러 민·관 단체가 협력해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살려 청소 및 방역, 안전, 쓰레기 처리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 작업을 펼쳤다.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사전에 대상 가정을 발굴해 정서적 지지와 집수리 서비스 연계 등 전방위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더클린협동조합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묵은때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대상 가구 외에도 마을이장과 함께 독거노인 10여가구를 더 찾아가 안전 점검과 전등 교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서비스로 실질적인 주거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송광면 덕동마을에서 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 비롯한 마중물보장협의체, 119생활안전순찰대, 더클린협동조합, 이장단 등 여러 민·관 단체가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문화재단 ‘문화기획학교’ 수강생 모집… 26일까지

(재)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6일까지 ‘2025 순천문화기획학교-도시가 시도가 되는 문화기획학교’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문화기획학교’는 자기 역할을 탐색하고 협업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수강생들은 이론교육, 멘토링, 지역기반 개별 프로젝트, 아트페스티벌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배 문화기획자와 함께 호흡하고 부딪히며 실무를 체득할 수 있는 강의를 경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문화기획자 또는 창작 과정에서 기획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신청 자격은 순천시 거주자 또는 순천시 소재 직장 재직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순천시 소재 대학교(대학원) 졸업자이다.

교육은 오는 6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천 노랑극장에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순천문화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co3606@cfsc.or.kr)로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화정책팀(061-746-29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4회 풍덕동 장미축제’ 10일 장미터널서 개최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은 오는 10일 장미터널 일원에서 ‘제4회 풍덕동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장미 활짝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낮에는 화사하게 핀 장미꽃 사이를 거닐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경관을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는 즐거움’을 한층 강화해 다양한 무대 공연과 함께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풍덕동만의 개성을 담은 조형물과 포토월도 마련해 ‘인생샷’을 남기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플리마켓과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참여형 퀴즈 이벤트인 ‘장미곶든벨’이 새롭게 마련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담락재·현판, 전남 유형문화유산 지정

조선 후기 역사·문화 가치 높아

순천시는 최근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교육과 문화, 선현봉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순천 담락재와 현판’을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 담락재(順天湛樂齋)는 옥전조씨 담헌중종의 재사(齋舍) 건물로, 1841년 순천 주암면 구산마을의 조진익(1788~1858)과 조진룡(1803~1860) 두 형제가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익·조진룡 형제는 향촌에서 형제간 우애로 명성이 높았는데, 후손들에게 형제간의 우애를 가법(家法)으로 전승하고자 특별히 서재를 만들고 ‘담락’이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담락’은 ‘서경’의 ‘소아’편 상체 시에 ‘부부가 금슬이 좋더라도 형제간에 화합하여야 가족이 화목하고 또 길이 즐길 수 있다’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담락재 건



순천 담락재(왼쪽)와 담락재 편액(석촌 윤용구 글).

순천시 제공



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에 전후좌우에 텃간을 뒀다. 처음에는 문중후손과 향리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서당으로 건립됐다가 후손들에 의해 담헌중종의 재실로 사용했다.

건물 내부에는 조진익·조진룡 형제와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노사 기정진의 시판(詩板),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과 조선후기 명필 석촌 윤용구의 편액(扁額), 그밖에 기문(記文)·주련(柱聯) 등 51점의 현판이 걸려 있다.

해당 현판은 조선후기 향촌 재사(齋舍)의 건립과 운영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특히 42종 45제의 시판은 담락재가 조선후기 교육기능과 문인교류

등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구심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재사(齋舍)는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나 사당 인근에 지은 건축물을 가리킨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천 담락재와 현판은 형제간의 우애를 실천하고, 향촌의 문화교류의 명소로서 조선후기 순천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유산이 잘 정비돼 그 가치가 후손들에게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